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렙바이블 대본집

Ep.047

#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상 1:1~3:18)

옛날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매년 가족들과 함께 ‘실로’ 지역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죠.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무척이나 슬퍼했어요.  
특히 해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한나의 슬픔과 허전함은 더욱 커졌죠.

“흑흑흑흑.....”

“한나, 또 끼니도 거르고 울고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울음을 그쳐요.”

하지만 한나는 아이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실로의 성막에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는 멀리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은 계속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보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는 게요? 술을 끊으시오, 술을!  
기도하는 곳에서 술주정이나 부리고 말이야.  
쯔쯔쯔...”**

**한나가 놀라서 대답했어요.**

**“술주정이라뇨! 제사장님  
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는걸요.  
저는 그저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는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나가 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한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응애! 응애!”**

이듬해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사무엘’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향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했죠.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몇 해 전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제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구요.  
제 아들 사무엘이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엘리는 몹시 기뻐하며 사무엘을 받아 주었어요.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늘 감사를 드렸죠.**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 일했지만  
형제가 어찌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던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동생아, 오늘은 맛있는 고기 좀 안 들어왔니?”

“헤헤헤. 한 번 확인해볼까?  
이야! 대박이다 형!  
아주 쓸만한 제물이 들어왔는데?”

**“카~ 역시 말이야!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  
흠쳐먹는 것처럼 꿀맛이 없단 말이지!  
오늘도 배 터지게 먹어보자꾸나 동생아! 필필필!!”**

**형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간절하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가로채는가 하면 예배 드리러 온  
여인들을 괴롭히고 희롱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아주 나쁜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 대제사장님께서 부르시는 건가?  
평소랑 목소리가 좀 다른데... 이 시간에 웬일이시지?”

사무엘이 엘리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뭐? 무슨 소리냐, 난 널 부르지 않았단다.  
어서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 여기며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다시 엘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대제사장님! 방금 부르신 거 맞죠?  
저를 부르셨죠?”**

**“아니, 이 녀석이... 꿈을 꾸 게로구나.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거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으니가요.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은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다시 한번, 엘리의 방으로 찾아갔죠.

“아이 참, 방금 절 부르셨잖아요! 대제사장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죠.



**“사무엘, 내 말 잘 듣거라.  
또 다시 너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무나.”**

사무엘은 다시 방에 돌아가 누웠어요.  
그리고 잠시 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나쁜 죄와  
그들이 앞으로 벌을 받게 될 거란 사실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인물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